

꿀벌이 주는 최고의 선물

超藥 - 초약 프로폴리스

-지난호에 이어서-

◆ 자기 자신이 부작용의 컨트롤을

1. 프로폴리스가 부작용을 경감한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신용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지금, 약을 사용하는 것이 체내의 다른 어떤 부분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지만, 약이란 어떤 것이든 독이며, 어떤 약이든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투병을 위하여 약을 쓸 경우는 주작용과 부작용 사이의 미묘한 '밸런스'를 의사의 손에 모두 맡겨 버리는 실정이다.

프로폴리스를 약과 병용하여 먹으면, 그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체험담을 많이 들을 수 있다. 프로폴리스를 먹게 되어 몸의 '컨디션'이 개선되고, 식욕부진도 없어지고, 통증도 가뻐워졌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동유럽 각 국의 프로폴리스 연구가와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프로폴리스의 부작용 경감 효과에 대한 임상 예가 많으며, 덴마크의 연구자가 쓴 프로폴리스에 관한 책에서 그 효과는 1만 6천명 이상의 증거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즉, 우리는 프로폴리스를 활용함으로써, 의사 손에 맡겨졌던 자기생명의 '밸런스'를 자신의 손으로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2. 생활의 질도 대폭호전

뿐만 아니라 프로폴리스는 서양의학에 이용되고 있는 의약품, 한방약 등을 병용하고, 또는 방사선 요법과 외과 수술 등의 방법과 병행하여 먹어도 이들의 효과를 강화시킬지언정, 결코 방해하는 일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적어도 나는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해서 치료효과가 시원치 않던가, '컨디션'이 나빠졌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프로폴리스를 약과 병용한 경우의 상승적인 효과를 기대시키는 증거로서, 위염환자가 병원에서 처방해 준 치료약과 병용해서 프로폴리스를 먹었더니, 의사의 예상을 훨씬 넘는 단기간에 치유되었다는 얘기가

있다. 또한 위장병의 경우와 항암제가 투여되고 있는 경우에는 식욕감퇴에 의한 체력 쇠약이 염려되는데,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부터 식욕이 생기고, 병세도 급속히 개선되었다는 얘기도 많다.

더욱이 암의 방사선치료와 항암제의 부작용인 식욕부진과 구역질, 전신 권태, 백혈구 감소, 탈모 등의 상태에도 프로폴리스를 먹고 있는 사람과 병원의 치료만을 받고 있는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즉, 프로폴리스는 여러 가지 치료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대폭 호전시켜준다. 비록 이 작용 '메카니즘'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고, 암을 완치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프로폴리스를 먹는 것으로 병의 상태가 좋아진다면, 환자에게는 기쁜 복음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프로폴리스에는 이런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커다란 작용이 있다는 것을 많은 체험담이 보여주고 있다.

◆ 프로폴리스로 항암제의 부작용과 싸우자

암과 항암제의 부작용을 프로폴리스와 함께 싸워서 이긴 한 남성을 소개하겠다. 훗카이도에 거주하는 아베 다카시(60세)씨는 1993년 2월에 간세포 암으로 진단되어 입원하고, 다음달에는 오른쪽 간의 절제를 위해 9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다. 그 후 항암제의 투여를 받으며 치료를 계속했는데, 그 사이에 백혈구, 혈소판이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머리카락도 모두 빠지며, 식욕의 감퇴와 구내염이 겹쳐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고통을 견디면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9월 퇴원을 앞두고 한 검사에서 이번에는 왼쪽 간장에 암이 발견된 것이다.

"첫번째보다 더 '쇼크'가 컸다."고 말하는 아베 씨를 지켜준 것이 프로폴리스와의 만남이었다. 그때까지도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써보고도 유효한 효과를 못 본 경험을 가진 아베씨였는데, 처음으로 프로폴리스를 입에 넣는 순간, 아내에게 "이것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베 씨는 지

금도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기 몸이 그렇게 느낀 것일지도 모른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그 날부터 아베 씨는 다량의 프로폴리스를 먹게 되었다. 가장 많은 때는 정제타입의 프로폴리스를 하루에 100~200알, 액체타입을 60~80방울, 또한 과립 상태 타입의 프로폴리스도 먹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에 먹는 양으로는 여태까지 듣지 못한 많은 양이다. 재수술을 앞두고 일시 퇴원한 아베 씨는 적은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폴리스를 계속 먹으면서, 취미인 등산에 도전했다. 간호사와 동행했지만 아베 씨의 체력은 이 단계에서 나지막한 산에 오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으며, 느린 걸음으로 어느 정도의 산에는 오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재 입원, 12월에는 간구역 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가족에게 마음속으로 이별을 고했다고 할 정도의 각오를 하고 있었던 수술이었다. 사실상 아베 씨의 간장은 마치 '암의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의사도 남은 수명을 3개월, 잘 견디어줘야 반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술은 성공했고, 아베 씨는 놀라운 회복은 나타났다. 수술 후 겨우 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외출 허가를 받아 정초는 자택에서 지낼 수 있을 정도였다.

또다시 재발하는 것이 걱정되어, 해가 바뀐 1월에는 항암제 주입용 '리저바'를 끼우는 수술을 받았다. 그 후에는 혈관 속을 통해서 간장까지 닿은 이 '파이프'를 사용해서, 간장에 직접 항암제를 보내는 치료를 계속하면서 추적검사를 했다.

두 번째 수술 후, 아베 씨는 첫 번에 그토록 시달렸던 항암제의 부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이상했다고 한다. 똑같은 병으로 같은 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들은 이전의 아베 씨처럼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만이 백혈구, 혈소판 검사 결과도 정상이고, 식사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으니,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전보다 머리가 검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아졌다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담당의사도 간호사도, 이런 아베 씨를 그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8월 검사 결과, 아베 씨 몸에서는 모든 암세포가 자취를 감춘 것이 확인되었다.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해서 10개월 후의 일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후 항암제의 투여는 1995년 7월까지 2주일 간격으로 받았는데, 그 후에도 부작용은 전혀 없었고, 각종 검사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아베 씨는 프로폴리스를 계속 먹으면서 다시 등산에 도전했다.

최근에 만났을 때 아베 씨는 "인간 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리고 그 치유력을 높이는 것은 체내에 넘치는 활력이 아닌가 한다. 나의 경우 이 활력을 산에 오르겠다는 마음과 가족의 손길, 프로폴리스가 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회갑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여, 대규모의 달리기 대회에 도전하겠다."고 왕성한 기력을 보였다.

◆ 체내의 병균을 배설하는 호전반응

1. 명현 없이 약효 없음

부작용과 혼동되고 있는 것에 '호전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명현'이라 하며, 한방약을 복용한 결과 병이 좋아지는 과정에 부스럼, 습진 등 예기치 않은 반응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반응은 동양의학에서 "명현 없이 약효 없음"이라고 할 만큼 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시되고 있다.

프로폴리스를 먹은 경우에도 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주된 증상으로는 얼굴과 몸의 어딘가에 습진, 부스럼이 생기고, 탈력감, 가려움, 변비, 설사, 눈곱, 미열, 발진, 손발의 저림, 관절통, 두통이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는 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프로폴리스 한 방울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대량을 복용해도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프로폴리스의 경우는 암환자로서 호전반응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다. 놀랄 정도의 많은 양을 먹은 경우에도 이렇다할 호전반응이 나타나지 않은데다, 암 병소는 점차 작아진다고 한다.

이런 반응이 프로폴리스의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아닌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런 반응 때문에 원래의 병이 악화하거나, 다른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 부작용과 호전반응의 다른 점

부작용과 프로폴리스의 호전반응이 다른 것은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알레르기성 반응이라면 먹었거나 바른 직후에, 혹은 수일 후에는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후의 반응은 1주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다.

그리고 같은 반응이 되풀이하여 나타나며, 이것이 점점 가벼운 증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알레르기' 반응과 크게 다른 점이다. 약의 부작용의 경우에는 증상이 거듭되어 고통이 심해지는데, 프로폴리스의

호전반응에서는 한차례 고비를 넘으면, 그 후에는 편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호전반응을 극복함에 따라 점점 몸의 '컨디션'이 개선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뚜렷이 안다는 것이 경험자의 말이다.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은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인데, 대체로 3~10일 정도로 자연히 가라앉는다고 한다. 2주일쯤 계속되는 사람도 드물게 있지만,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래 계속될 수도 있다.

호전반응이 일어나는 사람과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또는 반응이 나타나도 곧 없어지는 사람과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목되는 것으로 호전반응은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병의 증상이 중하다고 해서 오래 계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 암환자에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은 예인데, 내 생각으로는 이 반응은 사실상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병보다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의 깊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흔히 말을 하지만, 과거 또는 현재에 식품 첨가물과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동물성 지방, 당분, 자극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호전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항상 운동을 하고, 약 신세도 지지 않고, 식생활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부터 “호전반응은 체내에 있는 독소 배설이다”라고 했다. 이 사고방식을 좀 더 심화시키면, 여태까지 체내에 있었는데 몸의 면역기구와 자연 치유력이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병균이 프로폴리스 등에 의해서 이런 힘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호전반응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캄캄한 실내에 있었을 때는 눈에 띄지 않던 쓰레기와 먼지가 밝아짐과 동시에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여, 청소를 해서 모두 함께 버리려고 하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체내의 청소부에게 실내를 깨끗이 하도록 빛을 제공하는 것이 프로폴리스의 활약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호전반응은 지금까지의 건강치 못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계속 프로폴리스를 먹어도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걱정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프로폴리스를 중지하던가, 양을 줄여서 증상이 가라앉는 것을 기다려 다시 먹기 시작할 것을 권한다.

◆프로폴리스는 순수하게 먹는 것이 제일

1. 먹는 방법의 포인트는 흡수효율

프로폴리스를 먹는 방법에 대하여 충고한다면, 잊지 말고 일정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 주의하면 별로 어려운 것은 없다. 프로폴리스에는 식욕을 증진시키는 작용도 있으므로, 식전에 복용하면 식욕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만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식후에 먹어도, 또는 식간에 먹었다 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먹는 양을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액체로 되어 있는 프로폴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냉수나 온수에 타면 된다. “그래서는 먹기 거부하다”, “냄새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해설한 책에는 벌꿀, 레몬, 로얄제리, 비타민 C, 프로테인, 야채 주스, 우유, 영양 드링크 제 등을 섞어서 먹어도 좋다고 한 책도 있다. 그러나 프로폴리스의 흡수를 효율있게 하기 위해서는 혼합하는 것 없이 냉수나 온수로 먹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뇌에 여섯 개의 종양이 생겨 입원한 ‘프로폴리스의 광장’ 여성회원이 있었다. 그 사람의 경우, 항암제에 의한 치료도 효과가 없고, 외과적인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치유는 곤란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남편은 단념하지 않고 하루에 약 80방울의 프로폴리스를 두 번에 나누어 유동식에 섞어서 먹게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여섯 개였던 종양이 4개까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남편은 나머지 두 개의 종양도 제거할 목적으로 프로폴리스를 계속 먹게 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없어지지 않았다.

가족과 나(필자)를 포함한 ‘광장’의 친구들이 모여 “어떻게 된 것일까”하고 의논한 결과, “어쩌면 유동식에 섞었기 때문에, 80방울을 먹었다 해도 반 정도의 효과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후 남편은 프로폴리스 양을 하루 120방울로 늘렸다.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났을 무렵, 2개의 종양이 없어진 것이다. 이 여성은 순조롭게 회복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현재는 스스로 ‘스폰’을 들고 식사를 할 만큼 원기를 회복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나는 역시 흡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프로폴리스 사용방법의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했다.